

수능 이후 대입 전략

논술·면접이 당락 좌우

대학별 반영 비율·출제 경향 살펴야

전남대·조선대는 논술 없이 면접만 치러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함께 대입을 위해 수험생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고비가 대학별로 치러지는 논술과 면접 시험이다. 가 혼용된 지문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자연계열은 수학 또는 과학 교과 관련 문항이 출제된다. 인문계열 전 모집단위와 미대 응시

입시전문가들에 따르면 논술과 면접은 수능과 학생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점이 낮지만 대학별로 지원자의 성적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들이 치르는 특기자전형 논술고사는 한 문항에 대해 180분 동안 2천 500자 내외를 기술해야 한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성적만으로 인문계 2배수, 자연계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수능성적을

전남대와 조선대의 경우 논술 고사는 없으며, 전남대 수시 2-2 모집 전형의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오는 16일, 심층 면접은 27일 이뤄진다. 조선대 수시 2-2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6일, 면접 및 실기고사는 11월29일. 사범대학 지원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정시 모집 면접고사는 내년 1월8일('가'군)과 16일('나'군) 각각 실시된다.

◆ 나온데.. 올해보다 수시 신작과 제외하고 학생부 점수와 논술 및 면접·구술 점수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반영비율은 학생부 교과영역 40%, 학생부 비교과영역 10%, 논술 30%, 면접·구술 20%이며 학생부 교과목별 1·2등급에 같은 점수를 부여한다. 올해부터 자연계로 확대되는 논술고사는 인문계열이 3문항을 300분 동안 풀어야 하고 자연계열은 4문항을 200분 동안 풀어야 한다.

◇서울대=올해부터 수능성적과 학생부성적이 등급제로 전환되고 자연계에도 논술이 도입되면서 논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인문계열의 경우 영어 지문이나 한자 향을 300분 동안 풀어야 한다.

◇연세대=신촌 캠퍼스 정시는 모집 인원의 50%를 수능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며 나머지는 학생부 50%, 수능 40%, 논술 10%를 반영해 선발 한다. 수시 2학기 일반우수자 전형의

社告

2008 대입 논술 무료 설명회

더욱 비중이 높아진 2008 대입 논술고사에 대해
속시원한 해답을 드립니다.

광주일보사는 광주대성학원과 공동으로 서울
초암 논술아카데미 조성식 입시전략팀장(사진)을

초청, 대입논술 무료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입 논술지도의 최강자로 불리는 조성식 선생
은 주요대학 논술고사의 최신경향과 대비요령, 고
득점 단아자서전을 조목조목 짚어드린 경이입니다. 승현생과 하늘모여

극습·습관식강습을 소속조속 끝어드릴 것입니다. 수업강과 학구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일 시 : 11월 20일(화) 오후2시
- 장 소 : 광주 KT 빌딩 3층 대강당(동구청 옆)
- 강 사 : 조성식 서울 초암논술아카데미 팀장
- 대 상 : 수험생·학부모·각 고교 진학실장·논술교사
- 문 의 : 광주 대성학원(www.kjdaesung.com)
☎ 062-227-2255-7

☎ 062-227-0055~7

光州日報社·광주대성학원·초암논술아카데미

社告

2008 대입 논술 무료 설명회

조성식 선생 초청…20일 광주 KT빌딩 대강당



2008 전시 녹술 전략자료집 목록 배부

光州日報社·광주대성학원·초암논술아카데미

■ 대학별 정시 논술고사 전형방법 및 일정

■ 수능 정시모집 대학별 실질반영비율

